
기획논문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근대 영국사

— “자연상태”에서 인형의 집까지

여기에 실린 3편의 논문은 17~18세기 영국의 여성에 대해 다룬다. 여성이 철학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이론화되고 재현되었는지, 건축 및 물질문화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탐구하는 작업이다. 영문학은 일찍이 페미니즘과 젠더연구의 요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나 문제의식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 세 논문은 아직도 이 분야에 연구할 소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은경의 논문은 17세기 철학자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여성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홉스의 사상은 주로 법철학의 관점에서 다뤄져 왔는데 이 논문은 홉스의 정치사상을 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홉스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과 신약, 자연권의 이양과 같은 개념은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상태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홉스는 어떻게 불평등의 기원을 설명하고 특히 성차에 의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불평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차와 젠더를 중심으로 철학 고전을 새로 읽었을 때 텍스트의 틈새와 간극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다.

임재인의 논문은 급격한 성장을 겪은 18세기 출판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여성작가 수산나 산트리버와 엘라이자 헤이우드의 작품을 통해 여성 재산권과 자주권의 가능성을 살핀다. 1753년 결혼법이 증명하듯, 18세기 영국에서 결혼계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주된 이유는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재산권과 소유권이 남편에게 이전됐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소속되어 독립적 법적 지위와 경제적 권리는 물론 재산권, 자기결정권, 자기소유권을 포기해야 했다. 극작가 산트리버와 소설가 헤이우드는 결혼을 앞둔 여주인공이 이러한 현실에 맞서 재산권과 자기소유권을 쟁취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기존 18세기 연구에서 주변화된 작품을 발굴해 소개하면서 광기의 역사를 재산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여를 한다.

정희원의 논문은 영국에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연구의 한 예로, 17~18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의 인형집을 탐구한다.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 가면 페트로넬라 오르트만의 인형집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시형 인형집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탄복할 수밖에 없다. 정희원의 논문은 ‘여성에게 허락된 세계의 거의 전부였던 집과 가정’이 이런 식으로 축소된 형태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제작된 배경과 그 의미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2010년 개봉한 미야자키 히야오의 영화 <마루 밑 아리에타>를 떠올릴 독자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영화는 영국 아동문학 작가 메리 노트의 *The Borrowers*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데 정희원의 논문을 통해 우리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인형의 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영국의 젠더담론, 문학, 문화” 집담회의 결과이며 꾸준한 토론과 대화의 결실이다. 젠더연구, 소설연구, 근대사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